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737

JCCT 2023-11-87

발작과 보들레르의 배회자

Flâneur in Balzac and Baudelaire

이협*

Hyub Lee*

요약 이 논문은 오스망에 의해 주도된 파리의 변화를 발작과 보들레르의 작품에 등장하는 배회자를 통해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두 작가의 작품 모두 근대성을 표상하는 배회자가 파리의 시가지, 특히 건축물들을 관조한다. 근대성을 표상함에도 불구하고, 배회자들은 양가적으로 과거의 유산에 빠져있기도 하다. 발작의 『파리의 그릇된 면모』에서 남성 부르주아인 고드프와는 과거의 유산인 오래된 건축물들을 관조하는 배회자이다. 보들레르의 시 「빅토르 위고를 위한 백조」에서 근대의 카루셀을 지나는 배회자는 과거의 파리가 사라진 것을 느낀다. 「파리의 꿈」에서 환영화된 파리는 나폴레옹 3세가 장려한 자본주의적 활동에 의해 형성된 대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두 작가의 차이는 근대성이 파리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를 예시해주고 있다.

주요어 : 배회자, 파리, 오스망, 발작, 보들레르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how Paris was transformed by Haussman through comparing flâneurs in works by Balzac and Baudelaire. In both writers' works, flâneurs as the emblems of modernity observe Paris, especially architecture. Although representative of modernity, they are ambivalently obsessed with the heritage of the past. Balzac's *The Wrong Side of Paris*, Godefroid as a male bourgeois, is a flâneur observing antiquated architectures, the heritage of past. In Baudelaire's "The Swan for Victor Hugo" the flâneur passing through the modern Caroussel feels the Old Paris is gone. In "Parisian Dream," illusionary Paris exhibits metropolitan imagery wrought by capitalism led by Napoleon the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riters demonstrate how Paris was changed by modernity.

Key words : Flâneur, Paris, Haussman, Balzac, Baudelaire

1. 서론

도시의 구조는 사회·경제 체제의 산물이며, 그 체제를 뒷받침하고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이기도 하다. 19 세기의 파리는 이를 예시해 준다.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었던 파리의 구조적 변화를 추동하는 커다란 동인은 지배 계층에 의해 주도된 도시 재편의 욕구였다. 이 이면에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나폴레옹 3세(1808~73)가 통치하던 재위기간(1852~70)의 파리는 그 전 시대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그는 상공업을 장려하며 경제적 번영을 추구했다. 이에 맞추어 파리는 대도시이자 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동시에 개조와 성장도 시급한 요구사항이었다.

*정회원,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1,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hyublee@chosun.ac.kr

Division.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Chosun Univ., Korea

나폴레옹은 파리에 거대한 남북, 동서 축을 형성하는 새로운 도로망을 고안했다. 이는 중세식의 좁은 도로를 직선의 넓은 도로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황제의 구상을 실천에 옮긴 이는 오스망(George Eugene Haussman) 남작이었다. 과거의 파리에 384km의 도로가 있었으나 오스망은 중세적인 구조를 해체했다. 50km의 옛 도로를 폐지하고 95km의 새 도로를 났다. 이러한 물질적인 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계층의 변동을 수반했다. 오스망은 파리 시내의 빈민들을 외곽으로 추방시켰다.

이러한 개발 전후간의 변화는 당시대의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작가들 중 대표적으로 오노레 드 발작(Honore de Balzac)과 피에르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를 꼽을 수 있다. 발작은 비판적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의 선구자로서 19세기 전반기의 파리를 문학 작품세계로 풍부하게 들여온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보들레르 역시 파리의 모습을 시에 풍부하게 담아내었다. 19세기의 파리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조명했던 두 작가를 비교하는 작업은 매우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두 작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배회자(flâneur)의 시선을 통해서 파리의 외양을 묘사한다는 점이다.

발작과 보들레르가 묘사하는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로서 권력의 중심지이자 상업의 중심지 성격이 강했다. 수백 년 동안 서구의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했던 파리에 과거의 유산, 즉 왕권체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파리는 프랑스의 자본이 집중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산된 재화의 교환이 활발한 영역이다. 유통되는 상품의 이미지의 의미가 중요한 공간이다. 파리에서는 건축물의 기능적인 구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성해내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파리에서도 자본주의가 이면에서 작동한다.

발작의 작품으로는 『파리의 그릇된 면모』(*The Wrong Side of Paris*)에서 묘사되는 양상을 볼 것이다. 『파리의 그릇된 면모』의 프랑스어 원제목은 *L'Envers de l'histoire contemporaine*이며 *The Underside of Contemporary History* 정도로 직역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 수차례 발생한 혁명에 수반된 계층 간의 갈등에 관여하는 발작의 집필 의도가 제목에서부터

드러나 있다. 특히 파리의 중심지역인 Ile de la Cite에 대한 배회자의 시선과 반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구역은 과거 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은밀히 대변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보들레르의 경우 대표작인 『악의 꽃』(*Les Fleurs du Mal*)의 <파리의 풍경>(Tableaux Parisiens)이라는 섹션에 포함된 파리에 관한 2편의 시를 분석할 것이다. 보들레르가 묘사하는 파리는 오스망의 도시개조 정책을 주요하게 반영하는데, 이 변화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당시 집권 세력의 이념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다.

II. 발작이 묘사하는 파리의 과거의 유산

배회자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발작은 비평가들로부터 관심을 덜 받아왔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곤란하다. “발작의 배회자 예술가는 . . . 그의 소설의 페이지에 충만해 있다”[1]. 20세기에 배회자에 대한 연구를 선도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19세기의 수도 파리』(*Paris, Capital of the Nineteenth Century*)의 1939년 판본에서 발작의 작품이 배회자를 훌륭하게 예시한다고 언급한다.[2] 메리 글록(Mary Gluck)이 지적하듯이 보들레르는 발작을 본질적인 배회자(quintessential flâneur)로 간주하기도 했다.[3]

이 시점에서 배회자의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배회자의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우선 배회자로 흔히 번역되는데, 원래는 프랑스어 flâneur이다. Flâneur라는 단어는 원래는 과거의 노르웨이어인 flana라는 단어로 부터 유래하는데, ‘목적없이 배회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다.[4] 그렇지만 문화적인 맥락에서 주요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이다. 이 용어는 프랑스어라는 것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프랑스의 근대적 변화와 연관되어서 등장했다. 특히 파리의 근대적 변화를 관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의 풍요로움 및 근대성과 연관된다. 도시의 탐험가, 거리의 감정가와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발작은 배회자를 “눈의 미식가”[5]로 비유적으로 묘사한 바도 있

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배회자는 관조하는 대상으로부터 유리되어있다는 것이다. 관찰자이기는 하나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배회자를 벤야민은 도시의 근대적 체험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근대성 체험의 일종의 표상으로서 배회자는 제시된다. 그런데 배회자의 근대성 체험이라는 상황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배회자들이 과거의 유산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회자의 근대성은 이전의 과거와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양가적인 속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두 작가의 배회자들의 시선과 의식을 따라가며 고찰해 보고자 한다.

『파리의 그릇된 면모』의 배경은 1836년의 파리에므로 배회자가 출현하여 전성기를 누렸었던 1830년대와 1840년대에 해당된다. 작품에서 파리를 배회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고드프와(Godefroide)이다. 그는 배회자의 전형적인 카테고리인 남성 부르주아 또는 썩디 부르주아(petit bourgeois)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파리의 그릇된 면모』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인 고드프와에게 다가오는 파리 중심부의 인상이 묘사된다:

... 상류를 접하면서 그는 식물원(Jardin des Plantes)에서 노트르담(Notre-Dame)까지 강둑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류에서 그의 시선은 루브르 박물관까지 물의 장엄한 흐름을 따라갔다. 아이디어의 수도 어디에도 그러한 전망이 또다시 없다. 여기 Ile de la Cite 에 서서, 관찰자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바다 선박의 선미에 있는 자신을 상상한다. 이 풍경은 파리에 대한 꿈을 소환하는데, 로마인과 프랑크인의 파리, 노르만인과 부르주아의 파리이다. 중세의 파리, 발루아 왕족들, 앙리 4 세와 루이 14 세, 나폴레옹, 루이 필립. 이들 정권 각각은 관찰자의 마음에 창시자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흔적이나 기념물을 남겼다.

...facing upstream, he could survey the riverbanks from the Jardin des Plantes to Notre-Dame; downstream, his gaze followed the water's majestic course all the way to the Louvre. There is not another such prospect in all the Capital of Ideas. Standing here on the Ile de la Cite, one imagines oneself in the stern of some sea vessel grown to colossal proportions. The

view summons up dreams of Paris, the Paris of the Romans and the Franks, of the Normans and the Burgundians; the Paris of the Middle Ages, the Valois, Henri IV and Louis XIV, Napoleon and Louis-Philippe. Each of these regimes has left some mark or monument hereabouts, insistently recalling its creators to the observer's mind. [6]

위에서 묘사되는 지역은 파리가 발원한 도시의 핵심부이다. 이전 시대와 발작의 동시대의 지배 이념들이 과거의 건축물들에 체현되어 있다. 역사의 시대적 층위들이 건축물들에 중첩되어 있다. 발작이 속한 시대에 루이 필리프(Louis-Philippe)는 the Rue de Rivoli, the Place du Palais-Royal, the Hôtel de Ville 등을 계속 짓고 있었다. 권력 집단에 의해 세워진 건축물들의 이미지는 지배 이념을 대변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리는 중앙 집중적인 권력에 의해 계획되고 구성된 도시이다. 파리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경제적 권력의 중심지였다. 중앙 집중적인 파리의 시가구조는 중앙 집중적인 권력을 외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 구조에 시민들은 동화된다. 거주자들은 생존의 토대에 의존하게 되므로 중앙 집중적 구조가 내면화 될 수밖에 없다. 중앙 집중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권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미지 들을 통해서 지배 이념이 의식과 무의식에 각인된다. 지배이념은 내면화 되어버려서, 위와 같은 이미지에 접해온 파리의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 그 지배이념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진다. 지배 이념의 부인은 자기 정체성의 부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지배 이념의 틀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도시의 이미지에는 지배담론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를 텍스트로 보고 배회자를 독자로 보는 은유"[7]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III. 보들레르가 반영하는 근대성

폴 벨레인(Paul Verlaine)과 엘리엇(T.S. Eliot) 등이 지적하듯이 보들레르는 근대성의 시인이라고 흔히 불리운다.[8] 특히 "악의 꽃은 근대성과 기억에 의해

형상화되었다”[9]. 보들레르의 시는 발작의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세대의 이념을 반영한다. 1850년에 발작이 사망한지 얼마 후에 제 2 제정이 시작되었다. 제 2 제정의 이데올로기는 루이 필립의 이데올로기와 차이점이 있다. 언급했다시피 이 기간 중에 나폴레옹 3세의 명령을 받고 오스망 남작이 근대적인 파리 개조를 강력히 추진했다. 발작이 살던 시대에 비해서 이 시대의 파리 변화는 급속한 것이었다. 현재의 주요 건축물들 중 상당수가 발작이 살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오스망은 중세시대 이래 있던 좁은 골목들을 없애고 넓은 대로 중심으로 도시의 틀을 재편했다. 상하수도 시설 또한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서 파리에서 이전의 전근대성이 일부 제거되었다. 당시에 수많은 공공건물이 지어졌는데, 이는 건축물이 당시대의 지배 이념을 반영하는 예가 될 수 있다. 오스망은 구시대의 건축의 전통에 반대하면서도 권위적인 측면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었다.

도시의 시인으로 불리는 보들레르의 <파리 풍경>중 대표작 중 하나인 「빅토르 위고를 위한 백조」(“The Swan for Victor Hugo”)에 집권세력의 변화에 따른 파리의 변화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이 시는 주로 카루셀(Carroussel)이라고 칭하는 공간에 대한 배회자인 화자의 반응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분석에 앞서 제임스 맥거윈(James McGowan)의 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의 카루셀, 이곳은 루브르궁의 양 날개와 카루셀 아치 사이의 공간이다. 1852년 전에는 이곳은 작은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지만, 보들레르의 시대에는 기념광장 용도로 정비되었다. 근대의 카루셀을 지나면서 화자는 건축 부지였으며 동물원이 있었던 시절을 떠올린다. 과거의 파리는 사라졌다. 특히 세느강 오른쪽 둑은 오스망 남작(1809-91) 감독 하에 작업이 완료되었다. 오늘날 파리의 넓은 도로 중 다수가 19세기 중반의 이 재건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0]

이와 같은 건축물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시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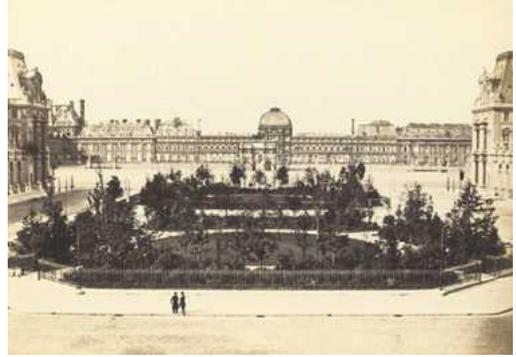


그림 1. 오스망이 기존의 건축물을 파괴한 자리에 지은 카루셀
Figure 1. Carrousel constructed on the site where Haussman destroyed former buildings

내가 근대의 카루셀을 지나고 있을 때
과거의 파리는 사라져있었다. 한 도시의
형태가 사람의 마음보다도 빨리 변하다니!

...
파리는 변한다! 그러나 나의 고독 속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새 궁전, 비계들, 블록들.
과거의 구획은 나에게게는 완전히 은유적이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기억은 암석보다도 견고하다.

A fécondé soudain ma mémoire fertile,
Comme je traversais le nouveau Carrousel.
Le vieux Paris n'est plus (la forme d'une ville
Change plus vite, hélas! que le coeur d'un mortel);
...
Paris change! mais rien dans ma mélancolie
N'a bougé! palais neufs, échafaudages, blocs,
Vieux faubourgs, tout pour moi devient allégorie
Et mes chers souvenirs sont plus lourds que des
rocs.[11]

카루셀의 변화는 오스망의 도시 개조의 결과이다. 이 변화를 접하면서 보들레르는 과거를 회상한다. 보들레르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의 이미지들이다. 보들레르가 근대성의 시인으로 불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과거 지향성은 다소 의외인 측면이 있다. 보들레르는 과거의 건축물들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심미적 관점에서 관조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보들레르는 이데올로기의 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있지는 못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권력 체계에 동조하는 성향이 있다.

발작과는 달리 보들레르는 사회체제나 계급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사회,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도시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취한다. 보들레르가 개인이기는 하나, 특유한 독자성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시인의 의식 세계는 역사적인 공동의 의식 세계이다. 개인화도 일종의 사회적 추세이다.

사실주의자인 발작과 달리 보들레르는 파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도시 자체의 상태보다는 도시에 대한 내면의 반응이 묘사되어 있다. 묘사의 초점이 다르다. 시인은 파리를 꿈꾸듯이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파리의 환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파리의 풍경>에 속하는 「파리의 꿈」(‘Parisian Dream’)이라는 시에서 이미지가 시인을 사로잡는 현상이 잘 드러난다:

이 이상한 장면에 대해
지상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오늘 그 이미지는 다시금
모호하고 떨어진 채로, 나를 사로잡는다.

잠은 기적으로 가득 차있다!
기이한 번덕으로
나는 이 광경으로부터 배제되었다

De ce terrible paysage,
Tel que jamais mortel n'en vit,
Ce matin encore l'image,
Vague et lointaine, me ravit.

Le sommeil est plein de miracles!
Par un caprice singulier
J'avais banni de ces spectacles[11]

보들레르의 파리는 환상으로서의 파리이다. 시인이 자신의 환각적 상태를 파리의 외양에 투사하는 측면도 있다. 보들레르의 시를 통해서 대도시가 어떠한 환상을 창조하는지 살펴 볼 수 있다. 파리의 이미지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환상이다. 자본주의를

포함하는 지배 권력을 지탱하는 주요한 지지대가 환상이다.

위의 2편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오스망의 도시 개조가 미친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보들레르는 제2 제정하의 도시의 혼종성을 극화하는데, 더욱 중요하게는, 오스망화에 의해 펼쳐진 북적이는 공적인 공간에서 늘어난 시간을 쓰는 파리인들의 집단적인 정신에 미친 충격을 형상화한다.”[12]

IV. 결론

두 작가의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두 작가의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작가의 배회자들은 근대성을 표상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있어서, 발작이 묘사하는 파리에 구체제의 잔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다. 잔존하는 구조물에 대한 배회자의 시선에서 기존의 지배체제는 물론 그 이전의 과거의 유산에 대한 뿌리깊은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보들레르가 묘사하는 파리에서는 과거의 유산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에, 근대의 면모를 더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다. 두 작가의 작품에는 사실주의와 몽환적인 모드의 차이도 있지만 주요한 쟁점은 근대화를 보들레르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발작의 작품도 간략하게나마 고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들레르의 근대성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보들레르만 떼어 놓고 분석을 한다면 배회자의 근대적 의의가 덜 부각되었을 것이다.

References

- [1] D.A. Vivian. “La ville aux cent mille romans”: Flânerie and Modernity in Urban French Literature from Balzac to Breton. MA Thesis. UC Santabarbara, p. 4.
- [2] W. Benjamin, *Paris, Capital of the Nineteenth century Expose*, 1939. <https://www.sfu.ca/~andrewf/benjaminparis.pdf>
- [3] M. Gluck, “The Flâneur and the Aesthetic Appropriation of Urban Culture in Mid 19th century Paris.” *Theory, Culture, Society* Vol. 20, No. 5, pp. 53-80, 2003.
- [4] “flaneur” Etymonline. <https://www.etymonline.com>

om/word/flaneur

- [5] H. Balzac. "Flaneurs and the 'Gastronomy of the Eye'" <https://www.futurelab.net/blog/2012/02/fl%C3%A2neurs-and-gastronomy-eye/>
- [6] H. Balzac, *The Wrong Side of Paris*, trans. Jordan Stump, Random House, p. 5, 2004.
- [7] D.A. Vivian. "La ville aux cent mille romans": Flânerie and Modernity in Urban French Literature from Balzac to Breton. MA Thesis. UC Santabarbara, p. 5.
- [8] J. Culler, "Introduction" *The Flowers of Evil*. Tans. James McGowan. Oxford UP, p. xxv, 1993.
- [9] B. Schlossman. "The Night of the Poet: Baudelaire, Benjamin, and the Woman in the Street." *Comparative Literature Issue. Spec issue of MLN* Vo. 119, No. 5, p. 1014, 2004.
- [10] J. McGowan, "Explanatory Notes" 350-85.
- [11] C. Baudelaire, *The Flowers of Evil*. Tans. James McGowan. Oxford UP, 1993]
- [12] D.A. Vivian. "La ville aux cent mille romans": Flânerie and Modernity in Urban French Literature from Balzac to Breton. MA Thesis. UC Santabarbara, p. 11.